

“양질의 의학교육 위한 인프라 확충”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의대생·전공의·교수들에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 호소

“양질의 의학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20일 오후 의대 증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의료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양 총장은 이날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 1천 명 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동부 산악지역과 서부 해안지역 대다수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특히 2027년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이 개원하고, 현재 군산, 남원, 진안 등의 공공의료원도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학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20일 오후 의대 증원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어 “그럼에도 의료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현재 교수님들과 전공의, 학생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고, 또 시설 확충과 교수 증원,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획기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대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에게도 국민적 피해 방지를 위해 강의실과 병원으로 돌아와 줄 것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양 총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대학은 국가 거점국립대학교로서 교육적·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모두 제자리로 돌아와 교육과 의료 현장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지식재산 서비스 우수교육기관 선정

우석대 산학협력단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4년 지식재산(IP) 서비스 우수 교육기관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우석대는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인 전주특화 K-방산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방 미래 신기술과 연계된 지식재산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지식재산과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식재

산 제도의 이해와 지식재산 정보 검색 방법 및 실무 보고서 작성 방법 등으로 진행, 관련 자격증 취득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교과과정과 자격증 교육, 취업동아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희석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우수 교육기관 선정을 발판 삼아 국가 전략기술과 지역 주력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일 우석대학교 예술관 소강당에서 제24기 국내 통일교육위원 워크숍이 열린 가운데, 박노준 총장, 이창성 국립통일교육원 사회교육협력과장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식품 분야 우수인력 양성·저탄소 식생활 확산

전주대, 농식품유통공사와 협약 체결 농수산식품 수급 안정 개선 등 협력도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0일 본관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푸드테크 계약학과 개설에 따른 식품 분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푸드테크 미래인재 육성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는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푸드테크 및 농수산식품 분야 우수인력 양성 협력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동참 및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등 ESG 실천 확산 △대한민국 농수산식품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수출 확대 등 농수산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기술·정보교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춘진 사장은 “푸드테크는 탄소중



전주대학교는 20일 본관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푸드테크 계약학과 개설에 따른 식품 분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립 시대에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 생명산업인 만큼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며 “더불어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에도 적극 동참해

야나쁜 지구를 건강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말했다.

이에 박진배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푸드테크와 농수산식품

분야의 우수 인력 양성에 노력하겠다”면서 “전주대학교도 저탄소 식생활 실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답했다.

/장은성 기자

‘북한 경제·사회 실태, 실상 바로 알기’

우석대, 제24기 국내 통일교육위원 워크숍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20일 예술관 소강당에서 제24기 국내 통일교육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와 북한 실상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박노준 총장과 이창성 국립통일교육원 사회교육협력과장, 전북·전남·광주 통일교육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

구위원이 ‘북한의 경제와 사회 실태’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또한 제24기 국내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호남지역 통일교육위원을 대상으로 통합교육도 진행됐다.

박노준 총장은 “미래 한반도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지역 거점기관으로서 남북의 문화를 이해하고, 평화통일의 인식을 확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올해 수능, 이렇게 준비하자’

전북자치도교육청, 23일 학습전략 설명회 개최

참석자 요구 반영 설명회 시간 6시간으로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수능 학습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에게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EBS 대표 강사인 한병훈(국어)·정종영(수학)·김수연(영어) 교사가 수능 학습전략과 고교생활 계획 수립 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참석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설명회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6시간으로 대폭 확대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는

국어영역, 오후 1시 10분부터 3시 10분까지는 수학영역,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는 영어영역으로 진행된다. 이어 5시 30분부터는 질의응답도 마련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날 설명회 영상을 유튜브 전북교육대입정보TV에 탑재할 예정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지난해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도 역대급 불능으로 수능 대비에 관심이 더욱 커졌다”면서 “이번 설명회가 우리 학생들에게 수능 준비를 위한 빠르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으로 경쟁력 강화

전북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협력지구 운영 간담회

운영비 투입... 재구조화 통한 교사교육과정 지원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창조나래 3회의실에서 전북교육협력지구 운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협력지구는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체가 함께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으로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마을교육생태계 구축, 지역 특화 교육과정 지원, 지역

사회 교육협력 등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협력지구 운영비 75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재구조화를 통한 교사교육과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교사·마을강사·마을활동가 등을 위한 주제별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교사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과정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마을연계교육과정 도움자료집도 개발해 현장 교사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전북형 교육협력지구 모델 구축을 위해 2개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기로 했다.

“마을과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는 교육협력지구 운영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통해 전북교육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이해성 교수, 양자기술 국제표준화공동기술위 의장에



전주대학교 이해성 교수(신소재화학공학과·사진)가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EC)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공동으로 설립한 양자 기술 공동 기술위원회 초대 의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IEC 양자 기술 백서를 발간, 2022년부터 양자 기술 표준화 평가그룹(SEG14) 활동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장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해성 교수는 IEC 양자기술 백서 발간, 양자기술 표준화 평가그룹(SEG14)에서 양자 기술 표준 로드맵 구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IEC와 ISO 이사국 만장일치로 의장직을 맡았다.

이해성 교수는 “국제 표준 활동에 대한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중욱)과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면서 “국제 초대 의장으로서 우리나라 양자 기술의 산업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아울러 전주대학교 신소재화학공학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신소재화학공학과 안계혁 학과장은 “나노기술과 소재 기술의 토대가 되는 양자 기술은 현재 국가 미래 전략기술로 급부상 중”이라며 “양자 기술 표준화를 선도한다는 것은 초격차 나노기술의 선점과 미래산업 게임 체인저 기술의 확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하이테크 ‘협약형 특성화고’ 거버넌스 협의회

지역 거버넌스 구축 힘 모아

25일 완주군 등과 협약 체결

전북하이테크 ‘협약형 특성화고’ 지역 거버넌스 협의회가 20일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열렸다.

이날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에서는 ‘협약형 특성화고’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주체들의 지역 인재 성장경로 수립 전략, 지역 정주시스템 구축, 컨소시엄 주제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협의체는 앞으로 교육발전특구와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를 연계한 지속적인 지역 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기업체-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전북하이테크고는 전북교육청의



전북하이테크고 ‘협약형 특성화고’ 지역 거버넌스 협의회가 20일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열렸다. (사진=전북자치도교육청 제공)

글로벌특성화고 육성 사업에 선정, 학과개편을 진행했다.

전북하이테크고등학교 한천수 교장은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청-지자체-특성화고-기업-유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에서 자란 학생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시스템”이라면서 “이번 거버넌스 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인재가 성장-취업-정주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꼼꼼하게’

전북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점검단 연수 실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점검단 등 60여명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오후 2층 강당에서 학교급식 점검단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비롯해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에 참여하는 점검단(학부모·소비자감시단)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수에서는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기준, 점검자 준수사항, 학교급식 점검 세부 요령 등을 안내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전북교육청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민간 점검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급식 점검의 실효성 및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서기 문체건강과장은 “학교급식에 대한 꼼꼼한 사전 점검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